

메시지 3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

성경: 요 14:16-18, 20, 롬 8:9-10, 갈 2:20상, 4:19, 엡 3:17상

I. 그리스도는 비밀이시고 그분의 내주하심 또한 비밀이다—골 1:27.

- A.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매우 실지적이고 친밀한데, 이것은 그분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친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요 14:20, 엡 3:17상.
- B.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실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롬 8:10, 고후 13:5, 갈 4:19.

II.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제자들 밖에 계신 보혜사이셨지만, 부활 후에는 그분의 제자들 안에 계신 보혜사가 되셨다—요 14:16-18, 20.

- A. ‘보혜사’에 대한 헬라어는 ‘옆에 있으면서 우리의 소송 사건, 우리의 문제들을 돌보는 변호자’를 의미한다.
- B.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정하게 보살피는 보혜사로서 외적으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제자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육신의 임재도 놀라웠지만, 그분께서는 여전히 육체 안에 계시면서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외적으로만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다—요 14:16.
- C. 내주하시는 보혜사, 곧 제자들 안에 계신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에 들어가셔서 실재의 영,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는 것이 필요했다—요 14:17, 고전 15:45하.
 - 1.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소중한 결과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요 1:12-13, 3:15, 14:16-17.
 - 2.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실재의 영이신 ‘그분’께서 18절에서 주님 자신인 ‘나’가 되신다. 이것은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의미한다—고전 15:45하, 고후 3:17상.
- D.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다는 것과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 곧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어 그분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불러넣으셨다는 것을 계시한다—요 1:14, 29, 14:16-17, 20:22.
 - 1.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러넣어지셨고, 그들 안에서 사실 수 있으시며, 그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요 14:19-20.
 - 2.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왜냐하면 이 영은 그분의 숨이시기 때문이다. 그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숨이시다.

III.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은 부활 이후에 믿는 이들 안에 사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롬 1:1, 3-4.

- A.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분은 이제는 더 이상 단지 믿는 이들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는 이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롬 8:9-10.
- B. 로마서에 있는 복음은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구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분의 복음이다—롬 1:1, 3-4, 8:10, 5:10.

IV. 사도 바울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믿는 이의 본이다—딤후 1:16.

- A. “하나님께서 ...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갈 1:15하, 16중.
1.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준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 있는 인격을 밝혀주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로 충만된 상태로 이끌려져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그 구성요소로 갖고 있는 새 창조물이 되어야 한다.
- B.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상.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신다고 말했다.
 2.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 C.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갈 4:19.
1.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 D.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갈 3:27.
1. 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실재 안에 잠기는 것이다.
 2. 우리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으로 입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외적 표현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 E.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엡 3:17상.
1. 아버지 하나님은 영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써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완전한 권리와 자유를 그분께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거처가 될 것이다.
- F.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빌 1:8.
1.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내적인 부분들 안에서 살았고, 그리스도의 내적인 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며, 그리스도의 내적인 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였다.
 2. 바울은 자신의 내적인 부분들을 고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내적인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 바울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내적인 부분들로 재조성되었다.
- G.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빌 2:5.
1.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각을 거절하고 그분의 생각을 취함으로써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2.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대치하도록 해야 한다—빌 1:21상.
- H.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고후 2:10하.
1.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접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면서, 그분의 눈언저리를 따라 행동했다.
 2.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였고 그리스도로 충만했으며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이었다. 참으로 그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골 3:11.